

우리 공장을 AI가 도와주는 운영환경으로 바꿉니다

로봇보다 먼저, 현장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대형 시스템보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연결합니다.

1. 현장 진단

2. 기준 정리

3. 스마트폰 입력

4. 한눈에 보는 화면

5. AI 도우미

어려운 말 대신, 현장 말로 설명합니다

사장님과 공장장님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무엇이 좋아지는지” 중심으로 말합니다.

1 AI

사람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놓치는 일을 알려주는
도우미

2 스마트팩토리

비싼 로봇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기록과 기준을 먼저 잡는 일

3 시스템

화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업무가 매일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 방식

현장 문제가 안 풀리면, 새 솔루션도 또 엑셀이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사도 기준정보·입력·책임자가 없으면 현장은 다시 카톡, 수기, 엑셀로 돌아갑니다.

19.5%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비율

75.5%

스마트공장 중 기초단계 비중
“도입”은 했지만 고도화는
아직 부족

1.5%

중소 제조기업 중 AI를 생산 현장에
적용한 비율

95%

많은 기업 AI 시범사업이 돈 되는
성과 없이 끝난다는 MIT NANDA 보고

핵심: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업무 흐름에 맞게 붙이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사장님과 공장장님이 매일 겪는 문제부터 봅시다

“AI”보다 먼저, 현장에서 반복되는 납기·품질·외주·보고 문제를 잡아야 합니다.

1 납기

어디서 늦어지는지
마지막에야 알게 됨

2 품질

검사 누락·재작업이
반복되지만 원인이 안 남음

3 외주

도장·세정·가공 출입고가
카톡과 기억에 의존

4 생산

오늘 어떤 작업이 밀렸는지
공장장이 직접 물어보아야 함

5 엑셀

담당자가 바뀌면
수식과 파일이 무너짐

6 외국인 작업자

작업지시·안전교육이
말로는 전달 안 됨

문제는 “시스템 없음”이 아니라, 운영 기준이 흩어진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떤 솔루션을 사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1 입력

실적이 제때 안 들어옴
수기·구두·카톡 의존

2 기준

고객명·품명·공정명
부서마다 다르게 사용

3 연결

수주·생산·외주·품질이
한 흐름으로 안 이어짐

4 책임

누가 확인하고 결정하
는지
R&R이 불명확

5 검증

새 화면이 실제 업무에
맞는지
확인 절차가 약함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을 먼저 팔지 않고, 현장 운영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큰돈 들이기 전에, 가장 아픈 곳 하나부터 바꿉니다

로봇·대형 MES가 아니라, 현장 입력과 기준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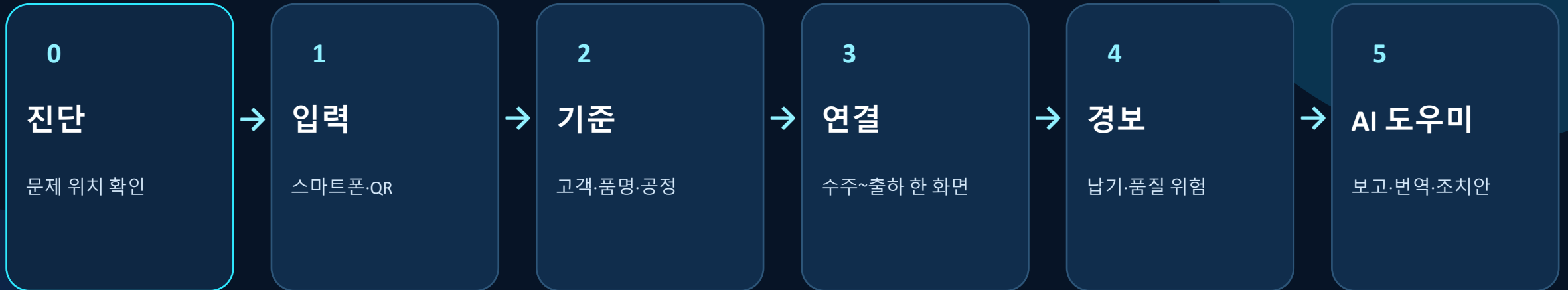
- 1 공장 돌아가는 흐름을 본다
- 2 엑셀 속 규칙을 꺼낸다
- 3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게 한다
- 4 납기·품질 위험을 한 화면에 보인다
- 5 AI가 보고서와 조치안을 도와준다

도입 원칙

작게 시작
매주 확인
현장 말로 설명
성과가 보이면 확장

AI 기반 제조운영 환경은 한 번에 사는 제품이 아닙니다

입력 → 기준 → 연결 → 경보 → AI 도우미 순서로 가야 무리 없이 정착됩니다.



먼저 “어디서 사고 있는지” 찾습니다

사장님이 보고 싶은 것과 공장장이 매일 막히는 것을 같이 봅니다.

엑셀

수식·외부링크·담당자 규칙 확인

기존 시스템

등록·조회만 되는지, 경보가 있는지 확인

현장 입력

실적이 언제, 누가, 어디서 입력되는지 확인

업무 책임

수주·생산·품질·외주 결정권 확인

납기/품질

반복 지연·불량의 원인 흐름 확인

개선 순서

돈 안 들이고 바로 할 것부터 구분

AI보다 먼저, 우리 공장의 기준을 맞춥니다

같은 고객, 같은 품목, 같은 공정을 같은 이름으로 불러야 납기와 품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명

2 제품군

3 공정순서

4 외주일수

5 표준시간

6 공정능력

7 근무달력

8 우선순위

효과: 기준이 맞으면 납기 위험, 공정 부하, 외주 지연, 품질 문제를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이 PC 앞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QR 찍기, 사진 올리기, 완료 버튼 누르기부터 시작합니다.



QR 찍기

작업 시작/완료



사진 올리기

불량·누락 증거



체크 누르기

검사·출하 확인



다국어 보기

외국인 작업자 안내

공장장이 물어보기 전에, 화면이 먼저 알려줍니다

오늘 위험한 오더, 막힌 공정, 검사 누락, 외주 지연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오늘 납기 위험

3건

외주 미입고

2건

검사 대기

5건

병목 공정

용접

오늘 회의는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조치할까?”로 바뀝니다.

AI는 공장장을 대신하지 않고, 공장장을 보좌합니다

AI가 할 일은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놓친 위험을 찾아주고 보고서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1

납기 위험

“이 오더는 외주 지연 때문에 위험합니다.”

2

품질 반복

“지난달 같은 불량률이 4번 있었습니다.”

3

작업지시 번역

“작업 순서를 베트남어로 보여줍니다.”

4

보고서 초안

“이번 주 지연 원인과 조치안을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AI는 현장을 아는 사람의 판단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돕는 보조자입니다.

엑셀 속 현장 노하우는 살리고, 약한 골격만 바꿉니다

기존 양식과 용어는 최대한 보존하고, 데이터 저장·계산·이력 관리는 시스템이 맡습니다.

기존 엑셀의 장점

- 현업이 이미 익숙함
- 담당자 노하우가 들어 있음
- 양식과 용어가 현장 말에 가까움



시스템이 맡을 일

- 한 곳에 저장
- 입력 오류 막기
- 누가 바꿨는지 기록
- 여러 부서가 동시에 사용

사장님과 공장장님이 보는 화면이 달라집니다

보고받는 방식이 “사후 설명”에서 “사전 조치”로 바뀝니다.

도입 전

- 납기 지연을 고객 전화 후 알게 됨
- 담당자가 바뀌면 엑셀을 못 고침
- 외주 누락은 조립 때 발견
- 품질 문제는 월보로만 확인
- 회의는 “누가 잘못했나”로 흐름

도입 후

- 오늘 위험한 납기가 먼저 보임
- 작업 실적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입력
- 외주 입출고와 결품을 체크
- 검사 누락과 반복 불량을 경보
- 회의는 “오늘 무엇을 조치할까”로 바뀜

우리가 약속하는 효과는 “현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100% 자동화보다, 매일 놓치던 일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납기

위험 오더를 미리 봅니다

품질

검사 누락과 반복 불량을 줄입니다

외주

부품 누락·입고 지연을 추적합니다

보고

주간보고와 회의자료가 빨라집니다

사람 의존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이 이어집니다

AI 준비

나중에 예측·추천을 붙일 데이터가 쌓입니다

우리는 “솔루션 판매”가 아니라 “운영 전환”을 합니다

컨설팅으로 먼저 운영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반 솔루션 도입

화면부터 제안
기능 목록 중심
현업 검증 약함
도입 후 엑셀 병행

우리 방식

현장 문제부터 진단
기준정보·책임·KPI 먼저 정리
현업확인표로 검증
앱/웹으로 운영 이관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갑니다.

대표님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짧은 진단 → 설계 → 첫 시스템 → AI 확장으로 나눕니다.

2주

빠른 진단

현장 문제·엑셀·기존시스템 확인

4주

전환 설계

기준정보·화면·운영롤 설계

8~12주

첫 운영시스템

납기·실적·품질·외주 화면 구축

3~6개월

AI 확장

경보·예측·다국어·보고서 도우미

첫 미팅에서는 세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전사 시스템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아픈 업무부터 시작합니다.

- 1 가장 자주 늦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2 가장 많이 엑셀로 관리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3 스마트폰 입력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제안: 2주 진단으로 “우리 공장의 AI 전환 출발점”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